

농업 동향

감귤, 우리품종과 재배기술로 맞선다.

- 감귤 신품종 팜플릿 및 GAP 지침 책자 발간·배부

농촌진흥청은 감귤 우리품종의 특성과 재배방법 등을 알기 쉽도록 제작한 '감귤 신품종' 팜플릿과, 고품질 감귤 안전생산의 기준이 될 '우수농산물관리(GAP) 표준재배지침서'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감귤 신품종' 팜플릿은 '하례조생', '탐나조생', '풍광', '탐도1호' 등 우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한 육성경위, 품종특성, 재배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품종의 성공적인 보급 확산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며, '감귤 GAP 표준재배지침서'는 감귤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실천 사항을 정리한 책자로 고품질 감귤 안전생산의 기준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팜플릿과 표준재배지침서를 적극 보급하여 영농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감귤 품종 및 재배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잡곡, 품종에 따라 파종시기 달리해야

- 농촌진흥청, 파종시기 맞춰 종자 준비 당부

농촌진흥청은 최근 건강기능성 작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조, 수수 등 잡곡류의 수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종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파

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봄에 일찍 파종하여 조기에 수확을 마쳐야 할 잡곡 품종은 일장 감응이 둔한 감온형 조생품종이 유리하고, 여름에 파종하는 잡곡 품종은 일장반응에 민감한 단기생육형 품종이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다.

현재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잡곡 중에서는 조, 수수, 대풍수수, 기장, 울무는 대부분 감온형으로 4월 중·하순에 서리 피해가 없는 한 일찍 파종하여야 하고, 조 중에서 청미실, 강들립조 같은 품종은 감광형으로 일찍 파종하면 조명나방 피해가 심함으로 6월 중순에 파종하여야 한다.

팔은 새길팔, 충주팔, 연금팔 등 개발된 대부분 품종이 중간형으로 6월 중순~7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고, 메밀은 대신메밀, 다원메밀 등 대부분의 재배품종이 감광형으로 일찍 파종하면 영양성장만 왕성하여 도복 등으로 인해 수량과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7월 중순~8월 상순에 파종하여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녹비작물 재배로 인삼 생리장해 예방

- 인삼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예정지 관리방법

농촌진흥청에서는 인삼 재배 시 미부숙 가축분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에 따른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리장해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인삼 재배농가에서는 염류가 과다 집적되어 인삼재배가 곤란한 토양에서도 보통 1년간만 예정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생리장해 발생으로 인한 수량 손실이 큰 실정이다.

염류농도가 높아지면 잎이 황화되는 황증이 발생하여 조기에 낙엽이 되므로 뿌리비대는 매우 불량하게 되고, 뿌리의 활력이 감소되어 실뿌리(뿌리털)도 탈락되고 수분이 제대로 잎으로 올라가지 못

해 증산작용이 억제되어 잎이 타는 고온장해가 발생한다.

염류집적 토양의 예정지에 2년간 녹비작물을 재배한 결과 생리장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고온장해 발생도 55%에서 18%로 감소하여 안정적인 인삼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수단그라스만 재배하여 예정지를 관리하면 염류농도가 1.18dS/m에서 0.97dS/m로 감소하고, 질산태질소도 114mg/kg에서 98mg/kg으로 감소하나, 인삼재배 적정기준치인 0.5dS/m 및 50mg/kg 이하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생리장해 발생 위험이 크다.

그러나 1년차에 수단그라스를 재배하고 가을에 호밀을 파종하여 2년간 예정지를 관리하면 염류농도는 0.27dS/m로, 질산태 질소는 32mg/kg으로 각각 감소하여 생리장해 발생이 현저히 경감된다.

농촌진흥청은 “녹비작물(수단그라스, 호밀)을 2년간 재배하여 토양에 잔류하는 화학비료 성분을 충분히 제거하면 안전한 인삼재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발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 2일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은 일자리 창출, 타 산업 경험 인력 유입을 통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 활력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직후 절정에 달했던 귀농인구 유입 규모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9세 귀농자 비중이 1998년 74.4%에서 2008년 46.3%까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0세 이상 귀농자 비중은 2.7%에서 23.8%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또한 2008년 3월 23개 시·군에서 귀농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농정착안정화 사업, 정착금 지원, 영농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정보 제공,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창업·정착 지원 등과 함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귀농교육 실시, 농산업 인턴제 확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하였고, 농어촌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정착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농협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방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1994년 「농업농어촌 발전대책」에서 제기되어 온 의제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치중, 경제사업 소홀,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만성화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3월 31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은 정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경제연구소 등의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본 원칙에 입각한 제안을 담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이번 안은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여 경제사업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신설하여 시장 대응력을 높이며,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함과 동시에,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독립 법인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 농협은 농산물 판매를 책임지는 체제 구축을 통한 수취가격 인상과 조합원 이익 증대', '기존의 보조지원 중심의 간접적 경제사업 대신 직접적 경제사업 확대 및 경제사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등이 있다. 또한 자본조달 능력 향상 및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연합회와 상호금융중앙금고(사업조직)를 통해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동시에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민·관 합동 「한식 세계화 추진단」 출범

범부처 차원의 한식 세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의 「한식 세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5월 4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식 출범한다.

추진단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양일선 연세대 교무처장 등 3인의 공동단장과 관계부처 차관, 학계, 식품업계 CEO, 일반경제계 인사, 농어업인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중에는 일본 동경에서 '고시례(高矢禮)'라는 한식당을 운영 중인 한류스타 배우 준씨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추진단은 반기 1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며, 한식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추진상황도 점검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날 출범식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4월 7일 열렸던 「한식 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엄에 이어 다시 한 번 참석, 한식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영부인은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추진단 출범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에 있어 명예

회장 자격으로 세계인과 함께 하는 한식 문화 확산과 경쟁력 있는 한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단 출범식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외에도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각각 한식 세계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7일 개최된 「한식 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한식 산업화·세계화 9대 중점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 중 비빔밥, 떡볶이, 김치,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식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한국문화원이나 코리아 플라자를 활용해 한식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해외 한국문화원 12개소, 한국관광공사 코리아플라자 8개소·해외지사 19개소)

외교통상부는 오는 6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내외 주요 국제행사와 재외 공관을 활용한 한식 홍보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도 한식을 수출하는데 기존에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갖고 있던 수출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기로 했다. 한식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에 수출보증을 우선 지원하고, Kotra의 공동물류센터를 국산 식재료 물류센터로 공동 이용하는 방안, 국내 유망 한식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사라져가는 자생 고사리 산업화길 열렸다 - 자생 양치식물 봉의꼬리, 선바위고사리 등 대량변식법 개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생식물의 멸종과 외국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관상가치가 높은 자생 양치식물인 봉의꼬리, 선바위고사리,

검정개관중, 가지고비고사리 등 4종에 대한 대량 번식법을 개발하여 자생지 보존과 함께 상품화의 길을 열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생물종 다양성이 점차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고, 관상가치가 뛰어난 일부 종들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생물종 보존과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국내 자생 양치류 중에는 우수한 형질을 지니고 있어 원예 상품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으나 양치식물에 대한 번식 및 재배법이 거의 개발되지 않아 원예작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양치류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6년부터 3년간 제주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양치류 100여종을 수집하여 실내분화용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상록 양치식물인 세뿔석위, 손고비 등 약 45여 종을 선발하였고, 2008년부터는 선발된 계통에 대한 대량번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번에 관상가치가 높은 상록 양치식물인 봉의꼬리 등 4종의 포자 실내(기내)배양기술 개발로 대량번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양치식물은 노지에서 포자를 파종하여 번식할 경우 발아율이 아주 낮고, 생산기간도 길어 상품화가 매우 어렵지만, 성숙된 양치식물의 포자를 살균하여 MS배지에 파종한 후 배양실에서 증식하면 재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대량으로 주년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증식된 양치식물 전엽체를 콩알정도 크기로 절단한 후 화분에 이식하여 순화처리 하는 방법으로 봉의꼬리와 가지고비고사리의 전엽체의 경우 시판 원예상토와 수태를 4:1 비율로 혼합한 배양토에 이식하고, 선바위고사리와 검정개관중의 전엽체는 원예상토에 이식한 후 50~70%차광막이 설치된 하우스 안에서 재배관리

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여 대량번식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자생 양치류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열대 및 아열대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식물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새로운 소득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지침

▶ 우리를 위해서...

- 외출 중에도 손을 자주 씻는다.
- 외출 후 손을 씻고 샤워를 생활화 한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재채기를 할 때,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
- 멕시코, 미국을 방문 후 1주일 이내 급성 호흡기 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 및 보건소에 신고한다.

▶ 동물을 위해서...

-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내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환축 유무를 수시 관찰한다.
- 농장 내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사료 운반 등의 필수적인 경우 내부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소독 및 운전자 소독을 철저히 한다.
- 농장 내 관리인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을 차단한다.
- 사람의 농장 내 출입 시 특히 돼지, 닭 등 대규모 사육의 경우 샤워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외부에서 동물을 들여올 경우 해당 농장의 질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식 후 일정기간 격리하여 질병의 감염여부를 관찰한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